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사로잡는 성공신화들

벤처산업 개척자, 역대 연봉자들의 성공담 호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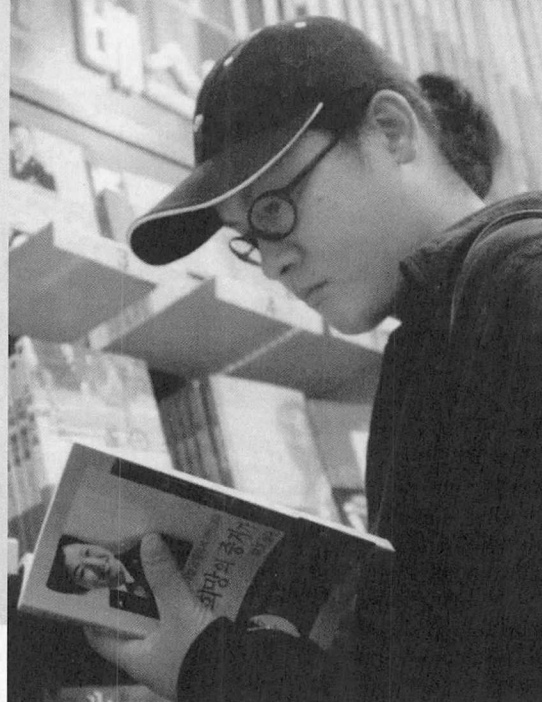
지금 서점에는 성공신화를 담은 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의 경영자부터 역대 연봉자, 전문직 여성들의 성공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인간이 되라고

주문하는 성공지침서들은 순응형의 인간을 재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할 우려도 높다.

시대환경을 반영한 듯
요즘 서점가에는 성공신화를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상당수 등재돼 있다.



한 불행한 여인이 있었다.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난 그녀는 겨우 여고를 졸업하고 가발공장 여공,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 사랑에 실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밤에는 웨이트리스, 낮에는 대학생으로 생활한다. 미국 유학에 입대해 소령으로 예편한 그녀는 현재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중이다. 두번의 이혼을 딛고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KBS일요스페셜 <가발공장에서 하버드까지>에 소개된 서진규씨의 인생역정이다. 그녀의 기구한 삶과 성공을 담은 자전 에세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북하우스)는 현재 수많은 독자를 사로잡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창업 7년만에 600억을 번 고졸 벤처기업가의 성공 스토리가 한 중앙 일간지 1면에 대서특필됐다.

성공신화의 주역 벤처기업가들

이들의 삶은 우리 사회가 낳은 성공신화의 전형이다. 불운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용기, 여성과 고졸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한 입지전적 삶... 하찮은 일상에서 허우적대는 소시민들은 그들의 삶에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성공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한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는 책들은 대부분 성공이라는 화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협과 서련이 공동 집계한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외에 레스터 C. 서로우의 《지식의

지배》(한기찬 옮김, 생각의나무), 리처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정영문 옮김, 창작시대) 등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 제목만 1천여권을 넘을 정도다.

우리 시대 성공신화의 주역들은 벤처산업의 개척자거나 외국 거대기업의 총수, 그리고 역대 연봉자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와 소프트뱅크의 창립자 손정의, 웹 비즈니스의 선구적 모델로 손꼽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은 그 상징적 인물들이다. 그밖에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월가의 황제 블룸버그, 미셸린사의 프랑수아 미슐랭 등의 경영철학과 인생 역정을 담은 책들이 서가를 채우고 있다.

이색 전문직 여성들의 성공담

여성 캐리어우먼은 성공신화의 단골메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외환딜러, CF코디네이터, 경력개발전문가, 컬러전문가 등 이색 전문직업인들이 남다른 경력과 승부욕으로 남성중심사회의 틈새에서 성공한 사례로 소개된다.

'입시공화국'의 교육현실을 반영하듯, 연말 수능시험이 끝나면 수험성공서들이 특수를 누리는 것도 우리 출판계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수능 시험 최초 만점자의 수능노트가 나오는가 하면, 수험생들의 꿈인 서울대 합격생들의 수험기가 베스트셀러를 장식하기도 한다.

성공에 대한 지침서들은 대부분 계몽을 목적

으로 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김경섭 외 옮김, 김영사)처럼 성공을 위한 습관, 비법, 황금률 등을 알려주는가 하면, 《하루 5분을 살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유성은, 좋은생각)·《웃기는 리더가 승리한다》(김진배, 뜨인돌)처럼 치밀한 시간관리와 유머화술, 리더의 자질 등을 친절히 안내한다.

어린이 도서까지 침투

성공에 대한 담론은 이제 어린이도서에도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린이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33가지 이야기》(이상배, 꿈이 있는 집), 《큰 사람을 만드는 55가지 이야기》 등이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신화를 심어준다면, 《엄마, 아빠 몰래 공부 일등하는 방법》(송태현, 파란나라), 《공부 잘하는 법》(출판기획실, 박정훈 그림, 예림당) 등은 현실적인 성공방법을 일러준다.

서점에 나와 있는 성공지침서들은 모두 성공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면 성공의 길이 보장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성공지침서들은 조직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재생산하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부추길 우려도 높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에 대한 독자들의 섬세한 비판능력이 필요하다.

— 박천홍 기자



앗, 이럴 땐 어떡해요? 도와줘요, 책!

위험한 세상, 피하는 법과 대처법을 알려주는 책들

주말을 이용해 서점에 나가보면, 맑고 밝고 아름다운 책들이 서가에 즐비하다. 그런 책을 하나 사두고 집으로 돌아가노라면 여간 흐뭇하지 않다.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삶의 미덕이다.

하지만 꼭 그렇기만 한 것일까?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면?

어느날 리모컨이 냉동실에서 발견됐다. 왜? 《세상은 위험투성이?》(넥스)를 쓴 이승렬씨는 밀폐된 아파트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연소되는 연료에서 발생한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생기는 질소산화물 때문에 주부들의 기억력이 갈수록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시멘트건물·음용수·비누·먹거리, 심지어는 정전기·파도까지 위협의 목록에 들어간다.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살 순 없다?

이런 사소한 걱정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안다면 더 이상 코웃음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TV 시청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2%의 비율로 비만아가 증가한다. 《소아비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무라타 미쓰노리 감수, 쌤티). 기억력이 감퇴한 어머니가 리모컨을 냉장고에 감춰두면 찾으러 다니느라 운동하겠지만, 리모컨이 있는 한 과식이 일상화된 현대 어린이가 비만을 피할 길은 없다. 방법이 있다면, TV를 덜 보고 아이와 같이 산책하며 밤에 일찍 잠드는 일이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소하다 생각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정서적 불안정은 물론 이후 성인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이 책은 경고한다.

아이가 컴퓨터에 몰두하니 공부하는구나는 생각도 금물이다. 도나 라이스 휴스의 《사이버 공간의 유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예영커뮤니케이션)는 인터넷으로 밀려드는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지키는 방법을 담았다. 불감증을 유도하고 친구들까지 성의 대상으로 여기는 음란물의 폐해를 막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역시 부모와 자녀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위험이 피해가진 않는다. 질병·직장 내의 따돌림·스토킹 등 수많은 요소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로 나타난다. 물론 한 번도 안 당하면 좋을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이런 위협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다룬 책도 많다.

타카이 노부오의 《회사에서 해도 되는 일, 안 되는 일》(황금가지)은 기업의 인사·노무 전문변호사가 쓴 판례모음이다. 거짓말·금전적 부정행위·사내불륜·계엄·폭력 등을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패소하는

다섯가지 원인으로 꼽는 등 직장생활의 방법론을 때로는 처세술에, 때로는 판례에 바탕해 서술한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사와 구성원은 서로 게임법칙을 가지고 일한다는 점. 이 규칙만 준수하면 회사에서 어떠한 위협도 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화제가 된 스토킹에 대한 대처법 역시 자세히 나왔다. 린덴 그로스의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문학사상사)는 스토킹의 발상지라는 미국에서 나온 최초의 종합연구서다. 스토킹의 사례와 미국의 법적 대처방안을 소개해 흥미위주로 스토킹에 접근하는 책과 달리 한결 실용적이다. 이 책이 원하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법. 의사표현에 서투르다면, 이 책에서 원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을 듯하다.

규칙을 지키고 의사표현을 똑바로 하는 일은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온다면 이런 대처방법도 별무소득이다. 이 때는 새로운 대처기술을 습득하고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엘 네이션의 《암환자를 위한 생존전략》(친구미디어)은 바로 이런 새로운 대처기술을 소개한 책이다.

자신만의 대처기술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

이 책은 암이라는 질병을 이해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암을 설명하는 일, 그리고 그들과 자신의 반응을 예상하는 일 등을 암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듯 보이지만, 글쓴이 자신이 두 번이나 암을 이겨낸 당사자라는 점에서 흘려들을 만한 일은 아니다. 갑작스럽게 과로로 남편이 쓰러진 뒤 벌어진 일을 다룬 신에리의 《선물》(삶과꿈)은 사망신고에서 각종 증명서처리, 회사와의 마무리 등 실질적인 처리과정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떠나보내는 방법까지 자세히 서술했다. 이 책은 떠난 남편이 자신에게 남겨준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이 책들의 소중함을 알기 힘들다. 누구에게나 피해갔으면 하는 일들을 다루지만, 이 책들에도 교훈은 있다. 바로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성장한다는 점이다. - 김연수 기자